

#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2020. 09. 제460호





##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대표하는 명품 쉼터 ‘근민정’ 탄생

가장 쉽고 간편한 행정으로 군민속으로 들어가서 군민과 함께 울력한다.

군민 공모를 통해 이름 붙여진 ‘근민정(近民亭)’이 가진 뜻이다.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 건축기술인력 양성사업단(센터장 남해경)이 기증했으며,

근민정 현판은 야천 하관수 선생의 글씨와 품가 김병옥 전 삼하면장의 서각으로 완성됐다.

안상섭 교수면민회 회장이 나무 구입에 애썼고,

김원봉 전 평통 고창군협회 회장, 전순종 고창읍 덕산이장 등 수많은 군민들의 정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시원한 멀구슬나무 그늘 아래 지어진 근민정이

군민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고, 행정기관의 딱딱한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02 포토에세이

명품 심터 '근민정' 탄생

04 군수 인사 말씀

2020년 한가위 즈음

06 고창 사는 기쁨

고창, 한반도 식품산업 수도로 날아 오른다

농생명수도 고창, 국내 식품기업과 협업 빛났다

고창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고창군 미래발전 마중물 된다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고창군복합문화도서관 본격화

국내최대 천일염전 보존해 명품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추석 전 60만원씩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농민공익수당 받는다

14 블로그 기자단이 간다

동우팜투테이블 / 고창고추직거래장터

16 함께하고 참여하는 고창

고창군이장단연합회 이기환 회장

고창군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김영창 회장

장애인복지관 / 여성회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22 추석 연휴 가볼만한 곳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학원농장 메밀꽃 / 꽃객프로젝트

24 고창이 참 좋다

‘책이 있는 풍경’ 박영진 총장

멜론농가 유신종 대표

고창군청점 ‘아띠다방’

30 고창군의회 소식

의장 인사말씀 / 제8대 후반기 원 구성 / 의정 포커스

36 문화관광이 힘이다

역사문화관광도시 이끄는 고창문화관광재단

38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더하는 고창



고창소식(재외군민 무료 우편 발송)을 보내드립니다.

주소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전화 063-560-2327 팩스 063-560-2259

홈페이지 [www.gochang.go.kr](http://www.gochang.go.kr) 발행처 고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발행인 고창군수

발행일 2020년 9월 10일 디자인 (주)해피데이신문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의한 3/4분기 1종 1회 홍보물입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사진자료를 고창군청의 허락 없이 무단복제 및 전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2020년 한가위 즈음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재외군민, 각계각층 지도자 여러분!

땀과 정성으로 재배한 농산물이 튼실하게 여물어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까지 넉넉한 한가위입니다. 올 한해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창군 또한 소외된 군민 없이 골고루 모든 계층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 희망의 결실을 하나하나 거두고 있습니다.

농생명 식품산업 수도 고창군이 키워낸 수박은 ‘높을고창’ 명품브랜드를 달고 식품대기업 CJ와 협업해 높은 가격에 판매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음료업계 1위 기업인 롯데칠성에서 고창 복분자를 활용한 복분자 주스 ‘미남은 복분자를 좋아해’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폭발으로 변해 군민의 애를 태웠던 고창일반산업단지에도 기업입주가 시작되며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농생명식품산업 육성’ 관련 1호 식품기업인 1500억원대의 동우팜투테이블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건축자재 생산기업인 금해산업은 공장을 짓고 9월부터 제품생산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인문학도시 고창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고창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이 본격화됐고, ‘공영 주차타워 건설’, ‘고창읍성 체험거리 조성’, ‘동호해

평이근민: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더 친근하게 군민 속으로 들어가 군민과 울력하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는 민선 7기 고창군 군정철학

수육장 야간경관 사업' 등 역동적인 도시기반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창사랑상품권', '높을고창카드'도 날개 돋친 듯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창의 돈이 고창 안에서 돌고 돌면서 동네 미장원 원장님부터 자장면집 사장님, 면사무소 앞 백반집 사모님 까지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고창군민 여러분!

새롭게 변화하고, 활력 넘치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내일을 더욱 기대해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에는 고창소주, 아락소주, 땅콩 막걸리를 비롯해 고창배와 멜론, 고창한우 등 우리 지역 농특산물로 차례상을 가득 채워서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군수

유기상





3000년 전 고인돌 시대부터 위대한 문명을 이룩해 온 고창군

# 민선 7기 출범 2년, 고창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고창일반산업단지

남고창IC



# 고창(高敞), 한반도 식품산업 수도로 날아 오른다

고창일반산업단지 \_ 동우팜투테이블, 고고홀딩스  
복분자농공단지 \_ 태송, 온국 투자 확정

2020년 고창군에 국내 식품가공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고창군은 산, 들, 바다, 강, 갯벌이 모두 있어 신선한 원재료 조달이 쉽다. 또 친환경쌀, 수박, 복분자, 멜론, 고구마, 땅콩 등 타 시·군에선 쉽게 시도할 수 없는 특작작물이 재배되면서 ‘특별한 맛’을 선보이려는 식품기업들의 안정적인 첫 사업지가 되어주고 있다. 여기에 군 단위로는 드물게 고속도로 IC가 3곳(선운산, 고창, 남고창)이나 있어 유통도 편리하다.

특히 식품 기업유치로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물론, 원재료 조달을 통한 지역 농식품 산업 활성화 등에 기대감이 크다.



## ■ ㈜동우팜투테이블

친환경 닭고기 전문기업. 2022년까지 3년간 고창일반산업단지 4만평 부지에 1500억원을 투입해 650명 정도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창지역에도 동우회사와의 납품계약이 20만수 이상 대형양계를 비롯해 총 40개소에서 100만수 이상을 납품하고 있다.

## ■ 고고홀딩스

국내 유명 5개 식품제조업체가 업무제휴해 만든 특수목적 법인(㈜도시농부라이프, ㈜연세웰빙라이프, 농업회사법인한농원(주), ㈜고려생약씨엔에프, 한방바이오(주)). 향후 300억원(부지 10만8768㎡, 고용예정 312명)을 투자해 건조밥, 컵밥 등 곡물가공 식품을 비롯한 식품첨가수, 홍삼 및 동충하초,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액상, 분말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 ■ ㈜태송

한국인 소울푸드 ‘볶음밥’을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2018년 복분자농공단지내 입주한 엄지식품의 자회사로 340억원(부지 2만628.4㎡, 고용예정 270명)을 투자해 볶음밥, 영양밥 등 곡물가공식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 ■ ㈜온국농업회사법인

고창의 향토기업인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의 자회사로 지난해 10월부터 복분자농공단지내 공장을 신축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분양받아 250억원(부지 9586.7㎡, 고용예정 50명)을 투자해 볶음밥, 핫도그, 갈비탕 등 가공간편식을 생산할 예정이다.

◀ ① ㈜동우팜투테이블 투자협약

② ③ 고고홀딩스(주)태송(주)온국농업회사법인 투자협약

## 하늘이 내린 농생명수도 고창, 국내 식품기업과 협업 빛났다

고창수박, 높을고창 마크달고 CJ더마켓에서 불티나게 팔려...  
하이트진로, 매일유업, 커피빈, 롯데칠성 고창 농특산물로 건  
강한 식음료 개발 '히트'

한반도 농생명식품수도 고창군과 국내 식품기업들과의  
협업이 빛나고 있다. 지난여름 고창군과 CJ제일제당이 손  
잡고 '식품전문물 CJ더마켓'에서 '높을고창 프리미엄 수  
박' 기획전을 진행해 큰 성과를 거뒀다.

기획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소  
비자에는 고품질 고창 특산물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마련  
됐다. 특히 전문선별과 품질관리를 통한 프리미엄 수박(8  
kg 이상, 12브릭스 이상)만이 '높을고창'브랜드를 달고 소  
비자들과 만나면서 소비자들에게 '역시 고창수박'임을 각  
인시켰다.

'높을고창'브랜드는 고창군이 개발한 프리미엄 농특산물  
브랜드다. '고당도·고품질 고창 농산물'을 의미하며 올 가  
을에는 멜론, 친환경 쌀 등이 공동선별·품질관리 등을 통  
해 시장에 유통될 예정이다.



###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자란 고창수박

고창군 전지역은 유네스코(UNESCO)로부터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  
정받은 지역입니다. 이 곳에서 수박 정식일부터 수확하는 날까지  
주기적인 현장 컨설팅과 교육으로 고품질 수박이 재배 되어지며,  
프리미엄급 농산물에만 표시할 수 있는 높을고창 브랜드가 인증된  
고창수박, 그 신선함과 달콤함을 느껴보세요.



▲ 높을고창 수박, 식품전문물 CJ더마켓 판매 이미지







국내 식음료 업계도 고창군과 손잡고 건강 음료를 잇따라 선보여 말 그대로 대박을 냈다. 먼저, 고창의 검정보리로 만든 하이틴진로의 '블랙보리'가 출시 2년 만에 누적판매량 1억6천만병을 돌파했다. 특히 블랙보리는 미국시장에도 진출하며 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커피빈코리아도 지난 7월 지역 수박농가 상생 협력을 위해 고창군을 찾아 아라프룻, 모건푸드, 디마인드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커피빈 고창수박 주스는 당도가 높기로 유명한 고창 수박이 통째로 담겼다. 별도의 시럽이나 설탕 없이 수박의 당도로만 맛을 내 건강한 음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매일유업의 폴바셋도 여름시즌 고창수박을 통째로 갈아넣은 수박주스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폴바셋 매장을 운영하는 엠즈씨드(주)는 고창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개발에 앞장서고 있고, 상하농원은 고창 수박의 안정적인 원물 수매와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국내 음료업계 1위 기업인 롯데칠성음료가 고창 복분자를 사용한 과일 주스 '미남은 복분자를 좋아해'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고창군은 한국체육대학교와 '건강식품 및 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고, 복분자와 수박, 멜론, 체리, 발효식초 등 지역 명품 농특산물을 기능성 스포츠음료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 국내 음료업계 1위 기업인 롯데칠성음료가 고창 복분자를 사용한 과일 주스 '미남은 복분자를 좋아해'를 출시했다.



▶ '블랙보리' 라벨



고창군-커피빈코리아 등이 함께하는 고창수박농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고창군-상하농원-엠즈씨드(주) 고창수박 유통관련 업무협약 체결



## 고창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고창군 미래발전 마중물 된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최종합의로 본격 추진...문재인 대통령, 유기상 군수 참석...연간 200억원 상당의 재생에너지 지원금, 20년간 발전소주변지역 정부지원금 300억원 등 기대

고창군의 해상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노력 끝에 마침내 고창 구시포 앞바다의 해상풍력단지가 본격 추진된다. 지난 7월17일 고창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 해상풍력단지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유기상 고창군수, 한국해상풍력, 고창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하면 구시포 앞바다에서 바로 보이는 현장이지만 이를 고창의 것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6년 한국해상풍력(주)이 구시포 앞바다에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 고창이 아닌 타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를 하면서 고창군의 정당한 해상권이 침해 받았다. 이후 고창군은 헌법재판소에 '공유수면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소했고, 마침내 지난해 4월 사실상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해상풍력단지는 국내최초 와인글라스형 미항인 구시포항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



해상경계 획정 관련 권한쟁의심판 현장검증



특히 연간 200억원 상당의 재생에너지 지원금(REC 가중치)은 물론, 향후 20년간 300억원대의 발전소 주변지역 정부지원금이 확보돼 지역 미래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해상풍력 업체에 현물이나 채권 방식으로 투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20~22년간 50억원)을 추진해 향후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 등 '수산물 천국' 고창 앞바다의 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의 것을 지켜내고, 기꺼이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희생해 주신 고창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해상풍력과 지역 수산, 관광업의 상생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도서관, 고창군복합문화도서관 본격화

도시와 공간에 대한 참신한 해석으로 주목받는 유현준 건축가 설계  
...“가변형 서가구조, 주민 공간 활용도 극대화”

‘책 읽는 도시’, ‘대한민국 대표 인문학 도시’를 목표로 한 민선 7기 고창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전북 고창군이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합친 신개념 ‘복합문화도서관’의 설계 당선작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건립 사업에 들어갔다.

고창군복합문화도서관은 고창읍 월곡지구 농어촌 뉴타운지구 내 4078㎡의 부지에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2020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오는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128억원이 투입되는 복합문화도서관은 지난 5월 건축 설계안을 확정했다. 설계는 도시와 건축에 대한 참신한 해석으로 주목받은 유현준 건축가가 맡았다.



▲ 7월 6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유기상 군수를 비롯해 인문도서 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통합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큰 나무 숲 아래에서 책을 읽는 것 같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적인 한옥의 목구조와 공간을 재해석해 다양하고 풍요로운 공간 구성을 제안했다.

고창군 복합문화도서관은 기존 도서관에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더했다. 특히 이동가 능한 가변형 서가구조를 도입해 고정돼 있는 공간이 아닌 ‘변화하는 도서관’을 제시했다. 인문학 도시에 걸맞게 다양한 강좌가 진행되는 강의공간, 동아리 활동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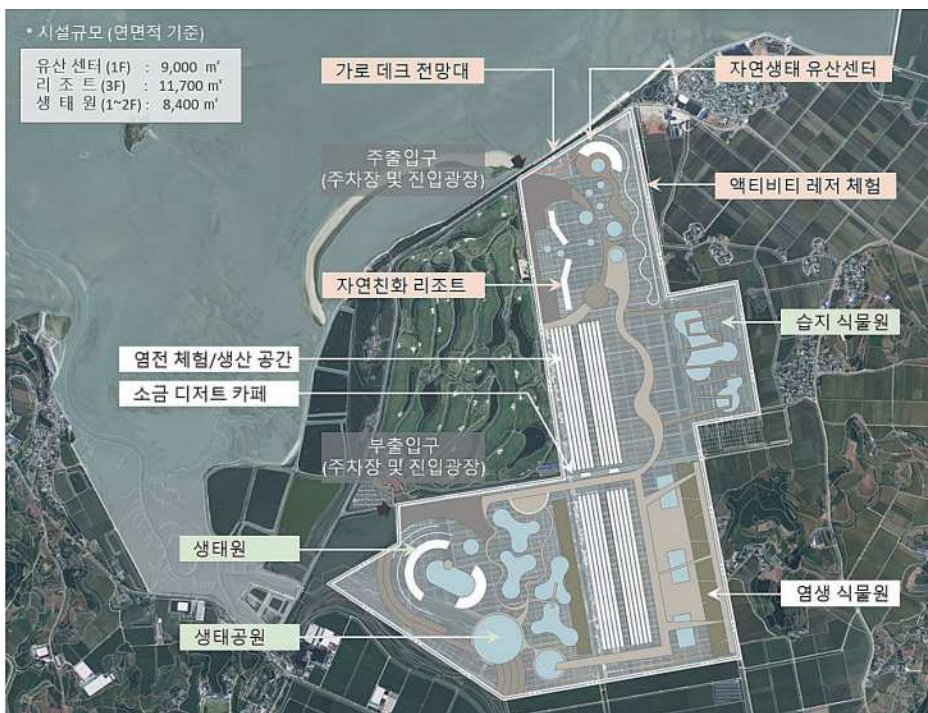
# 국내최대 천일염전(고창 심원염전) 보존해 고창군, 명품 생태체험학습장 만든다

“역사문화적 자원을 보존해 해양 생태문화 관광자원화, 세계최고 명품 소금 산업 육성”...지역주민 대표, 생태전문가 등 민간추진위원회 구성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도전 중인 전북 고창군이 국내 최대 천일염전을 보존해 명품 생태체험 학습장을 본격화한다. 천일염을 생산하는 삶의 현장으로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친환경적인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고창군은 심원면 고전리 염전부지(65만평)에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생태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앞서 군은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의 공동 용역사업을 진행했고, 지난해 연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반영시켰다.



고창군민의 대표기관인 고창군의회로부터 지난 5월 공유재산심의·의결 과정을 통과해 국가에 산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위한 토지 매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염전 폐업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겨 생계 곤란을 겪는 염전농가의 지속적인 생산활동 보장 등도 고려됐다.

천일염은 갯벌 안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부(鹽夫)’가 물과 태양, 바람, 기상 등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기술로 염도를 조절하고, 이를 고된 노동을 통해 일궈낼 때 비로소 탄생한다. 천일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염전에 자리한 각종 소금창고를 비롯한 건축물들은 염부들의 삶의 터전이자 근대에서 현재까지 이어진 산업시설로서의 가치가 높다.

고창군은 1차로 올해 350억원의 자체 예산을 활용해 일부를 매입하고, 내년 190억원, 2022년 160억원 예산 확보후 전체 부지매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군의 재정 여건상 한번에 700억원 대의 예산 투입에 어려움이 커 3년간 순차적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한다”며 “잔여부지 일대는 고창군의 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고시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태양광 시설 설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염전은 자연과 삶이 어우러진 생명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서 “자연에 거스리지 않고 오직 땅의 노력만으로 천일염을 거두는 소금장인의 열정에 지역의 생태문화 관광 자원이 결합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 고창군 1만195농가, 추석 전 60만원씩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농민공익수당 받는다

지난해 고창군이 시작한 농민수당, 올해 전북 전체로 확대...“고창에서 만끽하는 농사짓는 행복”



이는 고창 땅에서 토종종자를 지키며 땀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의 마음으로 농생명을 살리는 군정을 펴겠다는 고창군정의 가치이자 마음가짐이었다.

지난해는 실질적인 농가지원을 위해 고창군 자체적으로 1만162 농가에 28만5000원씩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민이 선정한 '2019년 10대 뉴스' 1위에도 선정되며 남녀노소 모든 고창군민이 공감하는 정책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전북도 지원금까지 확대해 60만원씩 지급이 확대됐다. 특히 고창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지역 경제 선순환 차원에서 조기 집행을 결정했다.

고창군이 1만195농가에 60만원씩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고창군이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해 올해 전북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된 '전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다.

지난해 고창군은 고창군의회와 손잡고 울려퍼 전국에서 첫 번째로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 농민지원 조례'를 제정해 농촌 마을 공동체 보존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 고창일반산업단지 오는 동우팜투테이블, 부안공장 먼저 가보니



## 유럽형 공장답게 시원시원한 모습 한가운데 기숙사와 어린이집 자리잡아 물고기도 살 수 있는 폐수처리장은 1급수 증명

2020년 마지막 복날인 8월15일 오전 11시, 부안의 참프레 공장 현장. 2013년에 완공한 참프레 부안공장은 유럽형 공장답게 시원시원한 모습이었다. 공장 가운데에 기숙사와 어린이집이 보였고, 시장통의 혼한 닭집 냄새는 느껴지지 않았다.

복날 삼계탕 수요에 맞추느라 생산라인은 쉴 틈 없었다. 닭을 들여오는 입구에서부터 CO2를 주입해 기절시키는 등 동물복지를 실현한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육계의 털을 깨끗이 제거한 뒤, 무려 5.8km에 달하

는 공기 냉각과 숙성 저온 공정, 자동 발골과 부분 육 가공공정, 영상시스템 품질검사, 중량 선별, 포장 검사, 주문자 생산 라인 등등 자동화와 인력 투입이 적절히 조화된 공장 내부의 움직임이 새로웠다.

폐수처리장도 찾았다. 환경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인지, 가까운 거리에 가도 악취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다. 고창공장은 공원형 폐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어 더욱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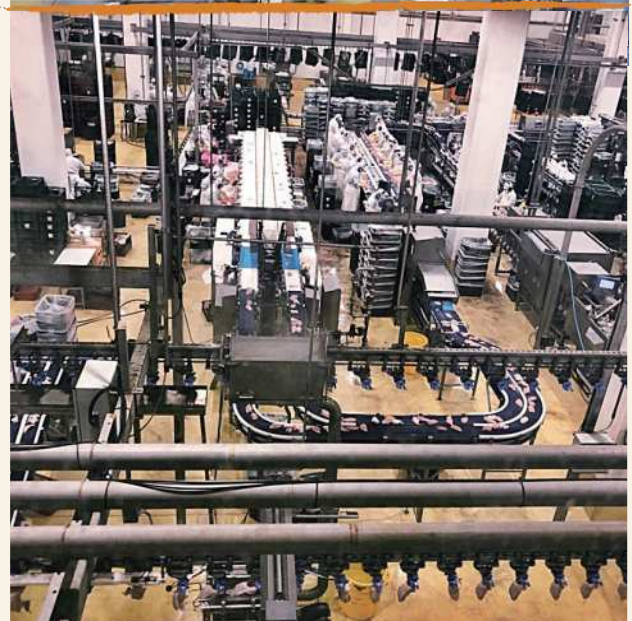
## 2년 뒤 고창일반산업단에 1500억원 투입해 650명 직접고용 “최첨단 친환경 시설, 고창군민에게 사랑받는 기업 될 것”

2년 뒤 고창일반산업단지에는 6만여 평의 공장터에 1500억원을 투입해 2년 후 직접고용 650명과 간접고용 29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라고 한다. 연간 13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등의 수입도 기대되고 있다.

(주)동우팜투테이블 고창공장은 이전 공장들보다 더 환경적으로 짓고 운영하며 동물복지를 추구한다. (주)동우팜투테이블은 운송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유럽형 최신식 닭 컨테이너를 도입해 미관불량이나 먼지 등을 원천차단하고 동물복지에 적용되는 쾌적한 환경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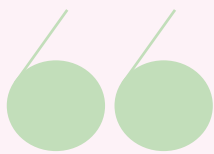
아울러 닭을 실은 차들은 닭의 수면과 이동차량이 적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시간대에 이동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참프레 고흥열 대표는 “고창에 지을 예정인 공장은 최첨단 오염저감시설을 도입해 냄새와 폐수 같은 문제로 군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공장을 개방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변에 다른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운영하는 바람에 오해를 받기도 했다”며 “고창에선 산단 인근 마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대편으로 차량진출입과 함께 건물 벽을 활용한 냄새차단 등 100m 밖에서도 공장가동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구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고창고추직거래장터에서 “올 김장 고춧가루 미리 준비하세요”



## 고창농산물유통센터서 9월말까지

## 고창읍 장날(3일·8일째)마다 고추직거래 장터 열려

지난 8월23일 일요일 이른아침. 고창농산물유통센터 앞이 붉은색 물결로 일렁였다. 고창 각지에서 생산된 명품 고추를 갖고 나와 파는 장터가 열린 것. 배 나온 아저씨부터 흰머리 지긋한 할아버지까지 저마다 머리며 어깨에 고추 포대를 이고 지고, 배달 손수레에는 고추 대여섯 포대가 한꺼번에 실려 나간다.

고창군에선 해마다 8~9월 쯤 공용버스터미널 옆 농협 근처에서 고추를 사고파는 장이 섰다. 그러나 공간이 비좁아 사고위험이 컸고, 비가림 시설도 없는 데다 주차를 할 곳도 마땅치 않아 파는 농가와 사는 소비자 모두 불편이 컸다.

이에 올해부터는 고창군과 고창 고추농가들, 황토배

기유통이 울려해 넓고 안전한 농산물유통센터로 자리를 마련해 ‘고창명품 고추 상설장터(매월 3일·8일 장날)’가 열리게 됐다.

해리면에서 아침 첫차를 타고 왔다는 70대 할머니는 “저번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고추가 상하지 않을까 애를 태웠다”며 “고추 판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할아버지랑 맛있는 것도 사먹을 생각이다”고 활짝 웃었다.

사가는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에 만족해했다. 고추직거래 장터에선 일반 시세보다 약 20% 정도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다. 장터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농가 직거래다 보니, 믿고 살 수 있고 확실히 가격이 저렴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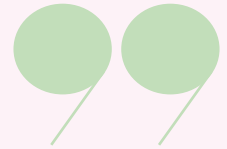


맛있게 매운 맛은 중독성이 강하다. 고창 고추가 그렇다. 달콤함과 매콤함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지금이 제철이다. 고창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고추는 전국에서 으뜸으로 손꼽힌다.

해풍고추는 청정고창 해안 일대에서 미네랄과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갯벌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병해충에 강하고 표피가 두꺼우며 특유의 매콤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김장김치에 사용하는 최고의 고추로 인정받고 있다. 매콤한 매력이 살아있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명품 고추로 맛있는 가을의 맛을 즐겨보자.

고창군 농어촌식품과 이영운 과장은 “올해에도 장마와 태풍을 이겨낸 고창 고추가 잘 익었다. 품질 좋은 고창 고추 많이 드시고 더욱 건강하게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넙찍한 곳에서  
고추 사고 팔아서 좋아요  
겉질이 단단하고 주름이 없고  
선명한 게 좋은 고추예요**



| 일시 | 9월 중 고창 5일 장날(3일·8일째)

| 장소 | 고창농산물유통센터 주차장(전북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65)





## 울력행정 고창군의 동반자 고창군이장단연합회 이기환 회장



고창군이장단연합회 이기환 회장은 2006년부터 14년째 후동마을 이장으로 일하면서, 흥덕면이장단협의회회장도 도맡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고창군에는 564명의 이장들이 힘을 합쳐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장단연합회는 이렇듯 많은 이장들을 대표하는 자리이며, 의견수렴의 일차적 창구인 이장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고창군과 마을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월례회의를 통해 이장들을 만나고 마을 소식을 공유한다. 서로 마을의 이야기를 나누며 고창의 민심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1년에 한번 이장과 가족들을 모시고 한마음단합대회를 열어, 고생하는 이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단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마을일꾼으로서 자질을 높이고,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등 지역경제 살리기도 앞장선다.

이기환 회장은 “요즘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및 예방활동, 고창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철 장마가 계속되자, 이기환 회장은 흥덕농협과 함께 흥덕·성내·신림 신청자에 한해 직접 무료 방역·소독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했다. 고창군은 올해 ‘고창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새롭게 바꾸었다. 이기환 회장은 “오래되고 낡은 규정들이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됐다”며 “고창군 564개 마을의 리더로서, 손잡고 울력해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 공동체 발전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지방자치 일번지 고창군의 향해사 고창군주민자치위원협의회 김영창 회장

2002년도 해리면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14개 읍·면 모든 지역, 총 390명 위원을 구성원으로 한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회가 군민의 격려와 응원 속에서 새롭게 탄생했다. 읍·면 모든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협의회장을 맡게 된 김영창 회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센터별 주민주도형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대한민국 고창시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창 회장은 고창읍주민자치위원장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왔으며, 전라북도 주민자치협의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참여와 열린 행정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며, 일선 읍·면의 행정뿐 아니라 생활 가까이에서 접하기 어려운 문화·체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해왔다. 주민자치위원협의회는 매년 ‘우리동네 뽐내기 경연대회’를 열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습득한 실력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월례회의, 주민자치 역량교육,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자치역량의 강화와 확대를 추진하고, 환경정화 활동과 문화지킴이 행사, 심폐소생술 교육 등 각종 봉사활동에도 열심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예방활동과 고창사랑상품권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김영창 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화합의 구심적 역할을 다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자치분권 시대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시대를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의 희망복지세상 **고창군장애인복지관**



정종만 관장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생활복지문화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복지관',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생활복지를 실현하는 복지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리는 생활문화 복지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종만 관장은 "지역사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 이용인의 욕구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복지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복지관이 휴관하면서 이용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월부터는 감염예방관리 매뉴얼을 적용하여 5명 이내의 소규모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다. 9월부터는 확대 운영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행사성 사업과 문화활동사업 등 집단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장애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며 가족들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여성친화도시의 행복한 배움터 **고창군여성회관**

여성회관에서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년 여성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여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직장인들을 위해 '생활요리반'과 '프랑스 자수반'을 야간강좌로, 고품격 상품 포장을 위한 '보자기아트반', 그림책활동가 양성과정인 '우리 이야기로 그림책 만들기' 과정을 신규로 개설했다. 지난해에는 10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중 39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다양한 문화활동의 창작자로서 자아실현의 기회도 갖는다.

고창군 김애숙 여성친화팀장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

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창, 군민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농촌형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교육생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마스크로 제작하고, 무더위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속바지를 만드는 등 재능기부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또한 여성회관에는 여성들의 서로 의견을 공유·토론하는 공간 '헤움터 1호점, 톡톡울림방'이 아늑하게 꾸며져 있다.





## 다문화가족의 안식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내 관계 증진을 위한 집합교육(가족, 성평등, 인권 등),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상담, 정보 안내,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고창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도 제공해,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돕고 행복한 가정을 도모하고 있다.

센터장 대원스님은 “요즘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고창군민의

피로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며 “센터는 각종 체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제공해 군민들의 몸과 정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상반기에 운영하지 못했던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결혼이주여성과 자녀간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부모코칭, 역사탐방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 가족 사랑의 날(체험프로그램), 가족 캠핑 등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다.



## 통합적 행복육아 실현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고창군의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보육·육아에 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지원 전문기관이다. 고창군의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키우기’를 율력하고 있는 핵심기관이다.

신지혜 센터장은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포괄적 보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함께 힘쓰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며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며, 어린이집 전문상담 및 보육컨설팅, 대체교사 지원사업, 장애아·다문화·시간연장 보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난감 도서관과 놀이터를 통해 영유아의 다양한 놀이경험을 지원하고, 아이공방 만들기과 오물락 조물락 요리교실 등 영유아에게 행복한 놀이체험을 제공 확대하고 있다.



신지혜 센터장



## 운곡저수지와 원시 숲이 한눈에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



##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가을이면 울긋불긋 단풍과 물안개가  
어우러지면서 전국의 수많은 사진작가  
들이 몰려오는 곳. 밤이면 반딧불이가 영  
롱한 빛을 뽐내고, 쏟아지는 별을 가득  
안을 수 있는 곳. 아침엔 피톤치드가 가득  
한 원시 숲속을 산책하고 먹는 마을밥  
상이 꿀맛인 바로 그곳에 '명품 숙소'가  
탄생했어요.

모두 12개의 객실로 이뤄져 동시에 80명  
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습지-저수지-용  
계마을을 이어주는 중간지점에 자리해  
'생태', '힐링', '소통'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잔디광장과 족구장,  
세미나실을 갖춰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과 대학생들의 MT는 물론 가족단위의  
호젓한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객실은 통창을 통해 운곡저수지를 바라  
다 볼 수 있고, 따뜻한 편백나무 원목  
과 모노톤의 원목을 사용해, 아늑한 휴  
식과 충분한 힐링을 통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줄 거예요.

고창군 아산면 운곡로 91



지난 봄 싱그러운 초록빛의 물결로  
넘실거렸던 고창학원농장이 메밀  
꽃으로 수놓아졌어요. 가을에 하얀  
눈이라도 내린 것처럼 장관을 연출  
하고 있는데요. 메밀꽃은 '얇은배이  
들풀'로도 불려요. 그 꽃이 하얗게 피  
어 초록의 이파리와 어우러지면 정  
말 도깨비의 사랑이야기가 들려오  
는 것 같아요.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길 158-15

소금을 뿌렸을까,  
팝콘을 소쿠리 채 쏟았을까

## 고창 학원농장 메밀꽃

### 꽃객프로젝트

선운산 꽃무릇과 함께 고창의 가  
을꽃으로 핑크물리가 뜨고 있어요.  
핑크물리의 우리말 이름은 '분홍취  
꼬리새'로 '꽃 이삭이 쥐꼬리만큼 얇은  
풀'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안개처럼 뿌옇고 화사한 모  
습이 포근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  
출해 인생샷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307

구시포 노을 보다  
진한 고창 핑크물리

※장소 방문시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거리두기(2발자국 이상)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고단한 삶의 싹포가 되어주는 '책이 있는 풍경' 박영진 촌장

고창 방장산 아래 고즈넉한 신림면 신평리에는 알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작은도서관'이 있다. '책이 있는 풍경'이라는 이름의 이 도서관은 사업가이자 문학평론가인 박영진(55)씨 (촌장)가 만들었다.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술 한잔 하며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도서관이기도 하고, 카페이기도 하고, 펜션이기도 하다.

빈터에 처음 건물이 들어선 때는 8년 전. 작은 건물 한 채로 시작한 이곳은, 매년 박 촌장이 필요에 따라 여유가 생기면 건물을 하나씩 늘려갔다. 지금은 시인의 방, 한국문학관, 인문학 관, 어린이도서관, 작가의 방 등 150여평 규모의 건물들로 구성돼 있다. 촌장은 '책이 있는 풍경'을 만들기 위해 돈을 번 셈이고, 돈이 생기면 6개월마다 증축했다고 한다. 지금은 여러 강의와 행사를 위한 '강의실'을 만들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

도서관은 원래 촌장이 개인 서재이자 쉼터로 만든 곳이다. 촌장은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사업에 실패

하며 삶의 밑바닥을 보았다. 그 허한 세상에서 책을 통해 자신을 지킬 힘을 찾았고, '책과 함께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 도서관과 함께 생을 꾸미고 있다. 도서관에는 2만여권의 책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다.

촌장은 "삶이 고단한 사람이 찾아와 편안히 몸과 마음을 쉬고, 한 사람이라도 책을 접하며 희망을 되찾는다면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곳은 상업적인 요소가 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누구라도 언제나 이곳에서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조용히 하지 않아도 되고, 뒹굴면서 책을 읽어도, 노래도 흥얼거려도, 흥이 나서 춤어 추어도 좋다.

도서관이지만 숙식도 가능하다. 펜션 못지 않은 편의시설도 두루 갖추고 있다. 주방과 침대는 물론 세면이 가능한 화장실도 네 곳이나 있다. 책과 함께 놀어지면 100명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엠티를 오기도 하고, 105연대(고창·정읍·김제) 장병들은 2주마다 무료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숙박비는 따로 정해진 금액이 없지만, 인원에 따



라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연간 5천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는  
고스란히 촌장 몫이다.

‘책이 있는 풍경’은 강의와 공연이 있는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매주 월요일 7시 인문학 강연(‘인문학이 번지점프하다’)이 펼쳐지며 광주와 전주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책이 있는 풍경’을 명물로 만든 것은 ‘북 콘서트’도 한몫했다. 올해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월의 어느날 가수와 연주자, 작가들이 모여 축제를 벌인다. 그리고 촌장의 어머니가 사랑으로 준비한 음식도 차려진다. 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힘든 시간을 견뎌준 것이 고마워서, 아들을 살게 한 힘을 준 ‘책이 있는 풍경’이 고마워서, 떡을 손수 만들고 식사를 준비해 콘서트에 오신 분들을 대접한다. 1년 동안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 7천명이 넘는다. 촌장에 따르면, “하나같이 ‘너무 편하다’고 입을 모은다”고 한다. ‘책이 있는 풍경’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방문한 사람은 없는’ 그런 곳이다.

고창군 신림면 입전길 47  
010-2992-5656 촌장 박영진





고창이 참 좋다

황토에서 자란 최고 당도  
최대 농가 유신종 대표



“황토 참흙, 밤낮 온도 차,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이라는 천혜의 환경, 그리고 고창농가들의 재배기술과 어울려 고창멜론은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창멜론생산자연합회 회장을 지낸, 무장토성멜론영농조합법인 유신종(62) 대표는 33년 전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었다. 벼농사부터 시작해 노지수박 등 특작을 짓다, 하우스로 돌린 뒤 수박·채소 이모작을 하다, 수박·멜론 이모작은 4년째 짓고 있다.

유 대표는 고창멜론 자량이 대단하다. 농민에게는 정식 후 3개월만에 수확이 가능한 고소득 작물이며, 고창멜론은 당도가 높아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거래된다. 8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수확하게 되면서, 가락동 시장은 고창멜론을 목빠지게 기다린다고 한다. 유 대표는 “앞으로도 전국을 넘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명품 고창멜론을 키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고창멜론은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4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3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작년에 진행된 ‘고창멜론 온라인 경매’에서 2개들이 1박스가 210만원에 낙찰되며 최고품질 홍보를 톡톡히 했다.

유 대표에 따르면, 고창의 진득한 황토 1그램에는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과 게르마늄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고창멜론 농가들은 매년 황토밭에 1톤 이상의 ‘벗짚’을 투입해, 고초균(발효균)에 의한 식물면역력과 식물생육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고창멜론은 당도 15브릭스 이상, 크기 2킬로그램 이상, 선명하고 굵은 원형 네트 등 프리미엄 과채기준이 적용되며, 고급 선물용 멜론으로 소비자 선호도를 바꿔 놓았다.

유기상 군수는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 판로를 개척해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고, 도시민들에게 고창멜론의 진정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의 친한 친구 고창군청점 '아띠다방'

‘아띠’는 친한 친구를 뜻하는 예쁜 순우리말이다. 고창군민 모두가 친구로 하나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작년 11월 고창군청 1층 로비와 민원실 사이에 자리잡은 ‘아띠다방’은 중증장애인 바리스타가 직접 손님을 맞는다.

고창군장애인복지관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매니저 1명(지체장애)과 바리스타 3명(지적장애)이 근무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카페 운영을 통한 수익금은 인건비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복

지 관련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아띠다방’은 고창군이 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됐다. 바리스타 등 직무훈련을 이수한 장애인들이 취업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된 셈이다. 유기상 군수는 “아띠다방이 고창 관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마련에 좋은 출발점이 되며, 군청을 방문하는 모든 분에게 아늑하고 향기로운 쉼터가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고창군은 중증장애인의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음료의 가격

**커피를 만들며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맛있는 커피를 사면서 기대와 행복을 느끼는 곳!**

**카페라는 공간에서 ‘서로 이해하고 행복을 공유하고’**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공간을 지향하는 곳!**





은 저렴하지만, (주)장진우의 컨설팅을 통해 맛과 품질이 보장된다. 원두는 덤셀브즈에서 납품받고 추출머신은 WMF익스프레스를 사용해 맛 표현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 ‘아띠다방’에서는 고창 특산물을 이용한 주스와 여러 식초음료들도 선보이고 있다.

그동안 딱딱하게만 보였던 고창 군청 입구에서, ‘아띠다방’이 친근하고 따스하게 방문인을 맞는다. 매니저가 주문을 받으면, 바리스타들이 서로 도우며 손발이 척척 맞는다. 이곳 바리스타들의 능수능란한 모습은 여느 카페나 다름이 없다. 장애인복지관 조덕환 사무국장은 “바리스타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 달라”며 “군민들께도 아띠다방이 행복한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7월 새로운 다짐과 열의로 고창의 미래를 열어나갈 제8대 고창군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발을 힘차게 내딛고, 보다 성숙한 자치역량을 발휘하여 군민 여러분께 믿음과 신뢰를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창군의회는 ‘마스크 기부’, ‘방역활동’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군민과 함께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라는 의정 구호 아래 군민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군민 여러분이 참여하고 함께 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께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 군민 속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는 군민 여러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또한 10명의 의원들이 하나 된 목소리로 군민의 삶을 더 살기 좋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고창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 고창군의회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고창군의회가 올곧고 진실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군의회 의장

**최인규**





### ▣ 제8대 후반기 고창군의회 의정구호

-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 ▣ 제8대 후반기 고창군의회 의정방침

- 군민 속으로 한 발 더 가까이
- 참여하는 의정 함께 가는 의회
- 군민에게 희망 주고 신뢰받는 의회

### ▣ 2020년도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9월~12월)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으로 책임행정 구현
- 제2차 정례회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1년도 예산안 심의
  - 2021년도 군정 시책 보고
  - 군정질문 및 답변
-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강화
  -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강화로 지역현안문제 해결





## 제8대 고창군의회 하반기 원 구성

고창군의회는 7월 2일 제273회 임시회를 열고, 하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장에 최인규 의원, 부의장 임정호 의원, 운영위원장 김영호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미란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차남준 의원이 선출됐다. 한편, 지난 7월15일에는 한빛원자력본부조사특별

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조규철 의원, 부위원장 임정호 의원을 선임했다. 조규철 위원장은 “한빛원자력본부가 고창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고창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장단



**의장**  
최인규



**부의장**  
임정호

###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부위원장** 조규철  
**위원** 조민규 · 이경신 · 차남준



###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란 **부위원장** 조민규  
**위원** 진남표 · 이경신 · 김영호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부위원장** 임정호  
**위원** 조규철 · 이봉희



### 한빛원자력본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부위원장**  
임정호

**위원** 조민규 · 이경신 · 이봉희 · 진남표 · 김영호 · 차남준 · 김미란



## 제27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제274회)를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개최했다. 6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7월16일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는 차남준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노을대교(부창대교, 고창 해리~부안 변산) 건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의결했다.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

라,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했다.

‘옛 도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낙후된 옛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공모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으로, 유·무형 지역 자산 등을 조사해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과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인규 의장은 “제8대 하반기 고창군의회 의사의 일정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준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 운영에 협조해준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회기동안 전달한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고창군의회는 7월9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고창군 기획예산담당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 건설 촉구 건의문

서해안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부산~파주간, 총 연장 1,239Km) 중 유일한 단절구간의 연결은, 지역 내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은 물론, 전국 차원의 해안국도를 완성하는 국책사업으로, 낙후된 서해안 지역의 개발촉진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확정(MP), 새만금 신항착공 등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 추진이 본격화 됨에 따라, 새만금지구와 서해안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부창대교(노을대교)가 건설되면 줄포만 우회도로(70.0km)를 7.5km로 대체하여 62.5km의 거리가 단축되고, 통행시간은 50분, 운행비용 등 연간 97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창대교 건설은 단순히 고창과 부안의 지역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도 77호선 전 구간의 개통으로 소외된 지역의 자존심을 세우는 국책사업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만금 지역과 변산반도 국립공원, 선운산지구를 연결하는 서해안권 관광벨트의 중심도로망 구축으로 낙후된 서해안권 경제 활성화 및 개발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에서는 부창대교가 건설되면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성은 물론이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의 획기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지난 20여 년간 부창대교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러한 고창군민과 군의회의 오랜 염원과 기대감을 감안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일괄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검토 중인 부창대교 건설사업이 최종적으로 제5차 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 고창군의회는 7월16일 제27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부창대교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문을 발표했다.



# 역사문화관광도시 이끄는 고창문화관광재단

## 문화의 숨결 살려 삶을 풍요롭게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지난해 12월 출범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 ‘지역 문화생태계 구축 통합운영’ 6개 사업이 연속 선정되며 지역의 문화적 유대감을 촘촘하게 엮어나가는 중이다. 고창의 황금빛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씨실과 날실로 만나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함께 가꾸어 나가는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까?

**생활 속 곳곳에 흩어진 문화 가치 찾기**  
“함께 하면 풍성한 문화가 될 텐데...” 재단은 고창지역의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연결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통합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

했던 문화를 발견하고 함께 모여 그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먼저, 인생 노하우를 인문학을 통해 풀어내는 멘토링 프로그램 ‘인생나눔교실’이 펼쳐진다. 다음 문화 다양성 이해와 확산을 위한 네트워킹을 통해 문화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발굴하는 ‘무지개다리’.

또 문화예술로 인생 후반전 새로운 삶을 탐색하도록 돕는 ‘신중년 문화

예술교육 지원’과 지역의 특색있는 공연 콘텐츠를 찾아내 매달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는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 사업들이 주민들의 문화적 경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문화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지역 문화매개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문화이모작’, 지역 내 문화인력을 찾고 지원하는 ‘지역문화인력 배치 지원’ 사업 등이다. 고창의 소중한 문화를 한데 합쳐 풍성하고 탄탄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주도형 관광사업 추진으로 고창의 매력 끌어 올린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이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다. 재







단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다.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7월27일부터 3일간 ‘문화 관광도시의 첫 걸음, 지역관광 거버넌스 플랫폼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선 지자체, 사업체,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고창의 관광 품질을 높여 관광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고창의 관광상품을 하나로 연결해 지역관광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

한 전략을 짜고 있다.

실제 고창문화관광재단에서는 고창 내 관광 인력과 자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고창형 지역관광협의회 구성을 시작했다. 또 하반기에는 지역관광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세미나, 전문교육, 학술대회 등 지역 중심의 다양한 활동들을 본격 시작된다.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 지

원’ 사업은 고창을 중심으로 한 관광 역량을 총동원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마케팅과 ‘머물기 좋은 관광고창’을 홍보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관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막기 위한 고창군의 노력

### 고창군수, 긴급담화문 발표하며 신속히 대응

지난 9개월간 고창군은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막아내고 있다. 지난 7월 광주, 전남발 코로나19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자 유기상 고창군수는 긴급담화문을 발표하며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유기상 군수는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를 격려하고, 이런 때일수록 더 외롭고 쓸쓸해지는 이웃들을 보살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생활속 거리두기의 강력한 실천과 이웃을 향한 자랑스러운 고창군민의 사랑과 배려야말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선한 백신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군민들도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지침을 지키면서 거리두기에 함께하고 있다.

또 기존 보건소에 설치된 음압 텐트형 선별진료도 사계절 검사가 가능한 ‘냉·난방이 겸비된 음압컨테이너’로 새롭게 변경 설치됐다. 컨테이너형 선별진료소 환자 진료공간에는 음압시스템, 냉난방기, 컴퓨터, 검체보관 냉장고, 해파필터를 장착한 공기 정화기가 설치됐다. 특히 의료진과 환자의 상호 호출과 통화 가능한 음향시스템 등이 완비돼 안전성이 강화됐다.



▲ 유기상 고창군수가 고창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한 긴급 담화문을 발표 하고 있다.

▼ 유기상 고창군수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방역용품을 점검하고 있다.



▲ 높을고창 비말차단용 마스크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창의 맞춤형 대응 '눈길'

## ‘코로나19극복 고창형 희망일자리’ 사업

고창군이 실직자, 저소득층, 휴폐업자, 청년 등에게 일자리를 주는 희망 일자리 사업(생활방역지원, 골목상권회복,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공공업무 긴급지원, 재해예방, 기업밀집지역 정비, 총 422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 고창군, 외딴곳 사는 취약계층 특별관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외딴 곳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40세대에 대해 특별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어통역사와 의료급여 사

례관리사(간호사)가 동행해 혈압과 발열체크, 식중독 예방 등 건강관리법, 일상생활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대상자에 맞는 핀셋 서비스를 연계한다.

## ‘높을고창’ 마스크 제작 배부

고창군이 자체 브랜드인 높을고창이 새겨진 마스크를 제작해 소외계층에 배부했다. ‘높을고창’브랜드는 고창군이 개발한 프리미엄 농특산품 브랜드다. ‘고당도·고품질 고창 농산물’을 의미하며 수박을 시작으로 멜론, 친환경 쌀 등이 공동선별·품질관리 등을 통해 시장에 유통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특별관리사업



## 자랑스러운 고창만들기 군민운동

### 고창 氣 살리기, 사(4)기 높이기!!

#### 01 고창 氣 살리기

- 고창 주인의식 심기 · 고창 자랑하며 살기 · 고향사랑 운동하기(향우와 함께)
- 살맛나는 고창 만들기 · 칭찬하고 박수치며 살기

#### 02 고창 사랑하기

- 고창 알고 사랑하기 · 고창 물건 사기 · 고창 기업 키우기
- 고창사람 고용하기 · 고창 업체 이용하기

#### 03 고창인재 키우기

- 자식농사 잘 짓는 기반 만들기 · 고창사람 먼저 키우기
- 고창사람 먼저 기회주기 · 고창인재 후원하기 · 내고장 학교 가기

#### 04 함께 나누기

- 나눔과 기부 가치 공유하기 · 자원봉사 생활화하기 · 이웃 먼저 배려하기
- 사회적 약자 배려하기 · 자리아타 정신 심기

